

### 수행 중 만난 꽃잎·껍질을 말리며 배운 생

11년간 사찰서 만난 감흥을 적은 에세이



꽃씨 신화

전미경 지음, 비엔케이, 2만 원

압화 작가 전미경의 '꽃씨 신화'가 출간됐다. 책은 작가가 11년간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얻은 감흥을 108개의 그림과 글로 표현한 예술 에세이다.

압화는 물감이나 붓이 아닌 자연 그 자체를 통해 그림이 완성된다. 나무껍질, 씨앗, 꽃잎, 나뭇잎을 직접 채집하고 펼쳐서 말리고 오려 붙이는 과정을 통해 자연을 회화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평생 자연을 화두 삼아 온 작가의 시선이 이번에는 산사에 닿았다. 2008년 여름 봉선사에서 시작한 발걸음이 오랜 세월 자연과 어우러졌던 송광사, 길상사, 선운사, 불국사, 표충사, 부석사, 해인사, 봉선사... 천년 고찰들로 이어진다.

"108개 산사 중 제일 인상에 남는 곳을 하나만 꼽으라면 어디를 꼽겠느냐고,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그곳은 밀양 재약산에 있는 표충사라고. 산사 주변의 산이나 계곡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편안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가 자연물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자연과의 만남을 좋아하고, 더불어 자연물의 천연 색상과 질감이 주는 편안함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작가는 어린 시절 자운영 꽃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기억하며 자운영 꽃씨로 그 마음을 그렸다. 자운영 꽃씨의 모습은 원표 같기도 하고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 같기도 하다. 씨앗은 그 자체로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모양마저도 태아를 닮았다.

책에 담긴 108점의 작품은 작가의 여덟 번째 개인전(2025.10.29~11.3,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만날 수 있다.

임요희 기자 hye@skyedaily.com



## 풍성한 문화행사... 佛서 온 초대장

6~9월 모네 서거 100주년 회고전

어릴 때 살았던 르아브르서 '인상, 해돋이' 등 걸작 만들어

7월 제78회 '아비뇽 연극제'

년 10만 이상 찾는 인기 축제 공식 언어로 한국어 첫 채택

내년 프랑스 전역에서 특별한 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

프랑스관광청은 제7회 '프렌치 테이즈 인 서울 2025'를 22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2026년 진행될 대형 이벤트를 발표했다.

먼저 7월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서 2026년 아비뇽 연극제(Festival d'Avignon)가 열린다. 1947년 연출가 겸 배우 장 빌라르의 주도로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10만 명이 찾는 인기 축제로 성장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아시아 언어로 최초, 단일 국가 언어로도 최초로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코린 풀키가 프랑스관광청 한국지사장은 "한국 문화의 파워가 반영된 채택이다.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의 공연예술을 프랑스와 국제 관객에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노르망디 르아브르의 무마(MuMa, 앙드레 말로 현대미술관)에서 모네 서거 100주년 기념전 '모네 오 아브르(Monet au Havre)'가 열린다.

르아브르는 모네가 다섯 살부터 18세가 지 살았던 도시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



스란히 담긴 르아브르의 항구와 바다는 그의 작품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모네의 대표작이자 인상주의 운동의 시작을 알린 '인상, 해돋이'는 1872년 르아브르 항구를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이 소장된 곳도 르아브르의 무마 미술관이다.

무마에는 르아브르 항구의 풍경을 담은 '르 그랑 쿠아 오 아브르'와 'La Seine à Vetheuil' 'Soleil d'hiver, Lavacourt' 'Fécamp, bord de mer' 등 모네의 작품이 다수 소장돼 있다.

그밖에 스페리마라톤대회(4월12일) 스칼라르카로스

테니스 대회(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예정) 스투르드 프랑스(7월4일~26일)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및 문화 행사가 연중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엑상프로방스에서는 '세잔의 해'를 맞아 폴 세잔의 유산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세잔 아틀리에와 가족 저택인 자 드 부팡 등이 복원되어 부분적으로 재개장했다.

2026년에는 세잔의 모든 유적이 완전히 개방된다. 아울러 디즈니랜드 파리는 세계 유일의 '라이언 킹' 주제 어트랙션과 '겨울왕국' 전용 공간을 2026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임요희 기자 hye@skyedaily.com

### 갑자기 숨진 남자, 그리고 시작된 마을의 재앙



마지막 장까지 예측할 수 없는 극강 스릴러

브록 쿤트리

클레어 레슬리 지음, 박지선 옮김, 북모리스, 1만9500원

신문 기자 출신 소설가 클레어 레슬리의 '브록 쿤트리'가 국내에서 출간됐다.

영국의 해안도시 도시의 농장을 무대로 펼쳐지는 소설은, 목장을 일구는 젊은 부부와 그들 사이에 침투한 남자 사이의 비밀과 아슬아슬한 균열을 그리고 있다.

베스와 프랭크의 목장에서 양 떼를 향해 돌진한 개가 총에 맞아 쓰러진 어느 날, 그 개의 주인이자 베스의 옛 연인 게이브리엘이 어린 아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평화로운 목장의 굳건한 질서에서 들이닥친 게이브리엘의 출현은 베스의 가라앉은 삶을 일순간 뒤집고 묻어두었던 과거의 사랑과 후회, 질투가 현재로 투입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분열된다.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드러나는 인간의 나약함과 상실 앞에 잘못 끼워진 죄책감을 종종히 엮어 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책임지는가?"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목가적 삶에 숨은 가혹한 현실과 그 안에서 빛나는 절대적 아름다움을 모두 보여주고 싶었다. 미스터리 범정극의 구성을 취하지만 사랑의 본질을 다루는, 처절하게 인간적인 소설"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브록 쿤트리'는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불가항력 앞에서 어떻게 다시 길을 찾는지, 그리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임요희 기자 hye@skyedaily.com



1 2 3 매년 7월이면 프랑스 남부 아비뇽을 무대로 연극제가 열린다. 4 모네의 '인상, 해돋이'. 5 프랑스 노르망디를 대표하는 여행지 몽 생 미셀. 아비뇽 연극제 · MuMa · 프랑스관광청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 누구나 꿈꾸면서 누구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58세 신예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 라라의 랩소디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